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세례

좋은 열매 선교회

서 문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다보면 자기 육체에 병이 생긴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병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육체에 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해도 기쁨 수가 없습니다. 먼저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아 그 병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무시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시하고 잊어버리려 애써도 죄는 살아서 우리 마음에 쌓여가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육체의 병은 좋은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지만, 마음의 죄의 병은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책을 쓴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책은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것이고,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너무 방대해서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성경 속에서 죄 사함의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알기위해 꼭 필요한 해석만을 첨가하였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누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람의 말이나 감정을 따라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허상을 좇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기록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죄 사함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믿음에 따라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죄 사함의 선물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어둡기 만만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환하게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전도자 장 상영 목사 드림

< 차 례 >

1.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율법 - 십계명
2. 날마다 드리는 속죄제사
3. 1년 치 속죄제사(대 속죄일)
4. 제사법대로 죄를 사하신 예수님
5. 예수님에게 죄를 넘긴 세례요한
6.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7.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8.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9. 세례로 죄를 없애신 예수님

1.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율법 -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17절〉

제일은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

제이는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제삼은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제사는 -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제오는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제육은 - 살인하지 말라 -

제칠은 - 간음하지 말라 -

제팔은 - 도적질하지 말라 -

제구는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

제십은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613가지의 금령들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금령들을 다 외우고 기억할 수는 없다 해도 십계명만큼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첫 사람 아담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죄의 욕망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죄를 깨닫는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늪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죄를 사랑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끝내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를 바로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양심의 법을 따라 막연하게 죄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가 고개를 들 때 마다 계명의 검으로 쳐서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싹을 자르지 않으면 금방 커져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 ‘도둑질 하지 말라’ 는 계명을 통해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 하는 것’이 죄임을 알 수 있고, 생각으로는 탐심을 가져서 이미 범죄 하였으나 행함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음란’ 이라는 죄가 있어서 늘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음란

한 생각이 생겼을 때, '간음하지 말라' 는 계명을 안다면,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고, 간음이 죄임을 알게 되고, 생각으로는 이미 범죄 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범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5:28)' 이렇듯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케 하지는 못합니다.

또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여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합니다. 공경하기는커녕 무시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빨리 상속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심지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는 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부모한테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엄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수많은 말 중에는 많은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하여 부풀리거나 속이는 말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로 이웃을 해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해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추구한다는 종교단체나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넘치고 사기와 모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든 거짓말하는 자로 인해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 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거짓을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거짓된 말로 인해 누군가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나 목사나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말의 파괴력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는 계명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죄 없다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죄가 올무가 되어 몸과 영혼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는 계명을 기억하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죄 인줄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을 얻은 자든 얻지 못한 자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하고, 그 법 앞에 드러나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계명이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와 싸우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버리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더불어 산다면, 그 죄와 함께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잣대로 삼아 그 법에 어긋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만 그 죄 사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서도 그 병을 알지 못한다면 그 병을 고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속의 병을 느끼고 알고 나서야 그 병을 고치려는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과 의사를 찾게 되고 치료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죄 속에서 살며 죄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죄 인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설상 어떤 이가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켜서 99%를 지켰다 해도, 이것은 100%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일생을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어겼다면 그 모든 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11절)”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참된 목적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목적은 절대 이 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해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 들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 들의 의는 자기 자신과 사람들은 속이는 거짓된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된 의를 애써 지키려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계명)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크게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명이지만,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힘을 다해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으로 우리속의 죄와 싸우는 일은 하면 할수록, 마음과 힘을 다해 죄를 안 지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우리가 죄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더럽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겸손히 그 죄 사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더럽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평생의 죄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 질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 날마다 드리는 속죄제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 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레위기4:1-4)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613가지의 금령들을 주셨습니다. 계명과 금령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범죄 한 것이고, 범죄 한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죽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를 죄 인줄 모르고 살 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죄를 알고 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죄들이 쌓여갔고, 죄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애써도 어느새 또 죄를 지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본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십계명 어느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계명과 금령들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그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명과 금령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자신들의 심히 죄악 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 사함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직도 ‘계명을 지키고야 말리라 계명을 다 지켜 의에 이르리라’ 고집을 부리며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헛된 몸부림을 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명과 금령들을 주셔서 죄가 드러나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의 핵심은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희생제물이 그 죄를 넘김 받고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죄를 사함 받는 속죄 제사를 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을 읽어보면 속죄 제사에 대하여 자세히 나옵니다.

613가지의 금령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합니다. 속죄제사의 제물로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나 수 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등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으면 백성의 장로들이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회막 문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넘깁니다.

여기서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안수(lay both his hands on the bull's head)--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그 제물의 머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수함으로 죄가 짐승의 머리로 넘어가기에 이 안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수를 하지 않은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 죄를 담당할 속죄제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흠 없는 수 염소를 데려다가 그 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넘깁니다.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흠 없는 암염소를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넘깁니다. 안수하여 죄를 넘긴 희생 제물만이 속죄제사에 쓰일 수 있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안수가 없는 속죄제사는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범죄 하였으면, 수송아지를 회막 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를 가리는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성소장 앞에 있는 금 향단의 뿔에 바르고, 회막 밖으로 나와 번제단 밑에 그 피 전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기름들을 취해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나머지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 모든 것을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태웁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 하였으면,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로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를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만일 족장이 범죄 하였으면, 흠 없는 수 염소를 끌어다가, 그 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범죄 하였으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번제단에 불살라 태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lay both hands on the head)하는 일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죄가 넘어가다, 죄를 전가시키다’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 대신 죽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하면, 그 죄가 그 희생제물의 머리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넘기는 방법 이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사에서 ‘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안수’를 하지 않은 속죄제사는 허사이고 불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죄제사시 ‘안수’하여 죄를 넘기게 하신 것을 꼭 알아야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긴 후에, 그 희생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 전부는 번제단 밑 땅에 쏟습니다. 번제단은 심판록 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흠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번제단 뿔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 밑 땅에 그 피 전부를 쏟는 것은 죄 사함이 두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록 책에서도 죄가 사하여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 속 에서도 지워져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연히 죄가 없어졌는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록 책과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죄가 없어져야 만 진정한 죄 사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속죄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쌓여 만 갔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매일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 인줄 깨닫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먼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는 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를 다 씻을 수 없고 죄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는 잠시 죄 사함의 기쁨이 있었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은 잠시 뿐이고, 돌아서면 또 죄가 있고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회개기도로 죄를 씻겠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기도의 의미는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다’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회개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사함을 얻는 것이지 날마다 그때그때 회개기도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회개기도를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다 쏟아 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생의 죄에서 구원하셨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죄를, 너무나 많아서 다 알 수도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단번에 없애셨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죄 사함 받는 믿음이 달라서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데 마음에는 죄가 있고 죄 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회개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겠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분명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3. 1년 치 속죄제사(대 속죄일)---레위기 16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찌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찌니라(레위기16:6-10)”

“이 날에 너희를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30)”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 이니라 (레위기 16:34)”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신 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날마다 회막 앞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끌고 가서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으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쌓여갔습니다. 죄인 줄 깨닫지 못해서 못 드린 것도 있고, 알면서도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날마다 하는 회개기도와 같습니다. 회개기도를 통해 그 때 그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 마음의 죄는 씻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회개기도를 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의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사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죄덩어리로 태어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케 될 수 없습니다. 겉은 조금 깨끗케 하는 것 같으나 속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우리의 속, 곧 우리 영혼을 깨끗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일하시며, 복음을 믿는 자들을 깨끗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 죄를 다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후에, 1년에 한번 드리는 제사로 1년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씻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 속죄일 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희생제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이날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였습니다.

아론은 자기와 자기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수 염소 두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기와 자기집안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아론은 자기와 자기집안을 위해 준비하였던 수송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자기와 자기집안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안수(두 손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얹는 것)’의 의미는 ‘죄가 넘어가다, 죄가 전가되다’입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긴 후에, 그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취합

니다. 그리고 향로에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득 채웁니다.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득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막으로 된 회막의 문을 지나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막으로 된 회막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천사-케루빔(cherubim)-를 공교히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회막(성막)의 문이나 회막 안의 지성소를 가리는 문(성소장)이나 회막 뜰의 높이 2.5m/ 길이 10m의 큰문도 모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천사를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회막 안에서 입는 거룩한 옷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회막의 문은 천국의 문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회막 문을 지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의 문이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색 실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뜻하고, 자색은 세례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뜻합니다.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성막의 문은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문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증거의 피를 가진 대제사장 아론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거룩한 옷 에봇(the ephod)을 입고 성막의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설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그리스도로 옷 입고서야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막(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성막의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우측(북편)에 떡 상이 있고, 좌측(남편)에 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서편)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를 가리는 문인데, 성소장(the veil sanctuary)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장 앞에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감싼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향단은 높이가 1m, 길이와 폭이 각 50cm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 향단 바로 뒤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짚 성소 장을 지나면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증거판을 담은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증거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이 증거판을 담은 증거궤를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고, 길이가 이규빗 반(1.5m), 폭이 일규빗 반(75cm)가 되게 만들고, 그 판위에 두 천사를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하나는 이 끝에 하나는 저 끝에 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얼굴들은 속죄소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게 했습니다. 속죄소가 덮고 있는 증거궤는 길이가 1.5m, 폭이 75cm, 높이가 75cm 되는 것이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증거궤의 네 발에 달고, 그 고리에 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싹습니다. 그리고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는 고리에 꿰 채 두고 빠지 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가 드러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속죄소로 그 증거판을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증거판을 덮지 않으시면, 증거판의 계명들이 우리를 정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소를 주셔서 그 증거판을 덮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도 정금으로 썼고,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고, 지성소 밖 성소에 있는 등잔도 정금으로 만들고, 떡상도 정금으로 감싸고, 향단도 정금으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정금으로 한 것은 찌끼와 티가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성막의 문이 전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을 때, 모든 의심과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막(성막)의 벽은 길이(높이)가 5m(10규빗), 폭(넓이)가 75cm(일규빗 반)되는 널판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각 널판마다 두 개의 축(tenon)을 두어 널판들이 하나로 서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이 널판이 좌측(남편)에 이십, 우측(북편)에 이십, 그리고 성막의 서편에 여섯 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의 뒤편(서편) 두 모퉁이 각각 널판 하나씩을 덧대어 두겹 두께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널판에는 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조각목으로 금고리에 꿰 띠를 만들어 금으로 감쌌습니다. 금고리에 꿰 띠는 좌측 널판에 다섯 개, 우측 널판에 다섯 개, 뒤편(서쪽) 널판에 다섯 개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널판 정중앙에 들어갈 중간띠는 널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는 긴 띠였습니다. 이 중간띠는 남편에 하나, 북편에 하나, 서편에 하나 총 3개입니다. 이 중간띠로 인해 널판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널판위에 씌워진 성막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천사를 수놓아 짖습니다. 총 열 폭의 양장(커튼)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폭은 길이가 14m(28규빗), 넓이가 2m(4규빗)입니다. 그리고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다섯 폭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개의 막을 연결하기위해 각 폭의 연결한 면에 청색실로 꼰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각 면에 50개씩 달고, 그 청색 고리를 연결할 금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개의 막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천사를 공교히 수놓아 짠 막이었고, 그 성막 안의 두문, 지성소를 가리는 문(성소장)과 성소를 가리는 첫 번째 문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천사를 수놓아 짠 문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라 하면 바로 청색 자색 홍색실의 믿음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알고, 모든 의심과 찌끼를 제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이들이 진정한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막과 성막의 문들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진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야합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향단에 향을 피워 그 향연이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이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

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레위기10:13)-

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해야만 하는 것은 희생제물(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기름을 태워서 속죄 제사를 드린 곳이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 죄 사함의 증거가 그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진 대제사장 아론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성막 문을 지나 또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짠 지성소의 문 앞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기롭고 곱게 간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날마다 어떤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지를 되새김질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분명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청색 자색 홍색실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대충 사람의 말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 1차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겼지만,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막의 문이 전하는 청색 자색 홍색실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이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땅에 오셨고,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온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죄 사함 받은 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라고 했습니다.

“물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 3:21)”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 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1서 5:6~8)”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물)와 십자가에서 죽으심(피)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물과 피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은 사도들이 믿고 전한 참 복음입니다. 성막과 성막의 문을 이룬 청색 자색 홍색실의 믿음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한 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려서 속죄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안에 들어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는 것은 일 년에 한번 대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이날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 받아서 죄가 없기에 지성소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자기와 자기집안을 위해 지성소에서 속죄한 후에, 다음순서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수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가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짠 지성소의 문(성소장)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지성소와 회막(성막)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번제단 앞으로 나와 번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수 염소의 피를 취하여 번제단의 네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취하였던 두 염소는 회막문 앞뜰에 두었다가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 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사를 드렸고, '아사셀' 로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 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아사셀(the scapegoat)'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지다/ 속죄양' 입니다. '아사셀' 로 속죄하는 방법은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기는 것입니다.

'안수(lay both his hands on the head)' 의 의미는 '넘어가다, 전가시키다'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로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가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속죄제물에게 죄를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속죄제사에서 반드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야 합니다. 안수 없이 드리는 제물은 속죄제물이 될 수 없고, 그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안수 없이 드리는 제사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넘긴 후에 '아사셀'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사람이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 놓았습니다.

회막과 번제단 사면 뜰에도 높이 2.5m의 세마포로 된 포장으로 담장이 쳐져있고, 그 정면(동편)에는 길이 10m 높이 2.5m의 큰 휘장으로 된 뜰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막 뜰 문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천사를 공교히 수놓아 짠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번제단을 위해 속죄하는 동안, 뜰의 포장 밖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뜰의 포장 안을 볼 수가 없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동안, 간절히 마음 졸이며 속죄제사가 끝나기를 기

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뜰 문 밖으로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끌려 ‘아사셀’ 염소가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아사셀’ 염소를 보고서야 안심하였고, 자신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볼 때, ‘아, 1년 동안의 내 모든 불의와 죄가 저 염소에게 다 넘어 갔구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장차 세례로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아사셀’ 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회막 안에 두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모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베실을 섞어 짠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물로 성소 안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대 속죄일 날 대 속죄 제사가 끝이 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제사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66권의 모든 성경 속에 구원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구원의 진리를 없애고 훼방하지 못하도록 말씀 속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구원의 진리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비밀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먼저 알고 전하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있으나 진짜 구원의 진리를 알고 전하는 선생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생각을 가르치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부를 챙기는 자들은 전부 거짓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삼위 일체 하나님 뿐 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섬김을 받고 권력을 행사하는 악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거짓 자들이 심판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세우게 하신 장막과 장막안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지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 갈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마음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었기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제사장은 단지 하늘의 참 제사장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기에 자기에게 나아오는 죄인들을 깨끗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막과 모든 속죄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참 것이 있기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자기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 지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죄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4. 제사법대로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 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26절)”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구속사역과 연결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이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찾아야하고 말씀에 근거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 를 먼저 알고 전하는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참된 일꾼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전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나 그중 진짜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 자기생각을 가르치고, 그저 헌금만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 합니다. 자기의 부를 챙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은 전부 거짓 자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되고,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 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뿐이지 인간이 무엇이 관대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악해서 자기를 높이고, 특별히 신령한 척 외식하며, 억지로 권위를 세워 왕 노릇하는 자들은 자신의 악함을 깨달아야하며,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자들 밑에 있다면 하루 빨리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과 성막안의 모든 기물들은 천국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지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마음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기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의 참 제사장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기에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깨끗케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막과 모든 속죄제사는 하늘의 참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 참 것이 있기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지를 가르치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레위 집이 아닌 유다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유다의 집으로 세운 새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 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 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 네 대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러 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7~21절)”

하나님이 유다 집으로 세운 새 언약대로 그 때가 되어 유다 자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성경에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출생하셨고, 성경대로 세례로 죄를 담당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에 참여하고 그 피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들을 깨끗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계보에 속한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그 이름은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계보에 속한 땅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자주 바뀌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에 그 직분도 영원하십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써 자기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으나, 하늘의 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시기 위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셔서 자기 피로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집으로 세운 새 언약의 주인으로써 하늘에 있는 온전한 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집으로 세운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계명과 제사법을 세우셔서 미리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속죄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의 예표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율법 아래서의 속죄제사에서 드리던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짐승의 피가 죄를 사했다면, 예수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참 제사가 아닌 참 제사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보고 반겨야 할 그들이 오히려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인정치 않았고,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 죄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회개기도를 통해 날마다 죄를 씻겠다는 믿음과 같습니다. 회개기도로 죄를 씻겠다고 믿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용서를 빌듯이,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면 사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하는 회개기도를 하고, 회개기도를 했으니 그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빠짐없이 회개기도를 했으니 이제 죄가 없다’ 고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사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말에 분개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자기 생각과 믿음을 부인치 못해서 믿지 않음으로 망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생각과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진리를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마음의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회개기도만 열심히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회개기도를 했어도 마음속 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믿은 믿음이 아니기에 마음에는 자유 함이 없습니다.

회개기도를 한 직후는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고 죄에 묶입니다. 그러면 또 회개기도를 하고, 다시 또 회개기도를 하는 것이 평생 반복됩니다. 처음에 잘못 배운 것이 습관적인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새롭게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로 그때그때 날마다 죄를 씻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끔 절끔 그 때 그 때 용서를 빌 때마다 죄를 사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죄를 사해주신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용서를 빌지 못한 죄들은 어찌 하나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리는 사탄마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닌 오직 단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단 한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한번 이 땅에 오셨고, 한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온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아담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모든 세상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죄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율법이 정하는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0.001%라도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채소를 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채소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머리에 안수 받아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원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자범죄도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일 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넘겼듯이, 인류의 대표로 세움 받은 세례요한이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써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온 세상 죄가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죄 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로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신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원죄, 자범죄를 모두 다 단번에 담당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 담당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 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진리를 듣고 믿으면 마음이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록 책에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믿으므로 단번에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남은 평생을 이 기쁜 복음을 기억하며 되새김질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므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림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 사함 받은 자들은 늘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 찬양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5. 예수님에게 죄를 넘긴 세례요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1장 76~77절)”**

구약시대에는 1년 1차 속죄하는 대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자손의 일 년 동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 받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희생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죄 사함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모형으로서의 속죄제사에서는 짐승(양, 염소, 송아지)이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제사인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된 짐승이 안수로 죄를 담당하였던 것처럼 예수그리스도께서도 안수로 세상 죄를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참된 이유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안수하여 희생제물에게 1년 치 죄를 넘겼듯이, 세례요한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나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온 세상 죄를 단번에 넘긴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론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땅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기에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죄를 넘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2~14절)”**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대표로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세상 모든 죄를 넘겼기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세 사람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계명과 제사법을 주셨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주의 백성을 예수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 곧 세례요한을 통해 온 세상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넘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을 드려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라 함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이고 어머니는 엘리샤벳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만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는 아론의 자손 중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제사장 수가 많아지자 제비를 뽑아 그 순서를 정하여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 반열은 그 중 8번째 순서였습니다. 사가랴 가 아비아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그가 확실한 아론의 자손이고, 정통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해에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침 사가랴 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복음 1장 8~9절)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와 어머니인 엘리샤벳 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장중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가랴 을 택하셨고, 그에게서 세례요한이 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가랴 와 엘리샤벳 은 이미 나이 많고 늙어서 아이를 수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는 평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해 세례요한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도 흠 잡을 수 없도록 준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부여한 자격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 온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넘긴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 살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야생 꿀)이었습니다. 30세가 되매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가 있으면 제사장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때부터 이제는 죄를 가지고 세례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전파한 세례는 ‘①머리에 안수 ②물에 잠김 ③물에서 올라옴’의 방식이었습니다.

- ① 머리에 안수 : 죄를 넘김
- ② 물에 잠김 : 죽음
- ③ 물에서 올라옴 : 부활

세례요한은 세례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받아 죄를 담당하고, 또한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 죄를 사하실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안수로 죄를 담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죄를 인정하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는 목적은 세례요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자기들이 받은 세례의 방법으로 온 세상 죄를 자기들의 평생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세례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아무도 세례요한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속죄 제사를 잘 드렸기에 죄가 없고, 세례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힘써서 부인했습니다.

율법아래에서는 속죄제사에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죄 사함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어떤 희생제물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제물이 되시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장차 올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기쁨으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요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세례 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5~8절)”***

빛은 예수님을 말함이고, 어두움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귀기우려야 하고, 그의 증거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때가되어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 온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임무이고 역할이었습니다.

6.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3~17절)”

예수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제사법대로 죄를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가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한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3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31절)”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알린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죄가 없으면서도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까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면 세례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음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곧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세례를 주고 예수그리스도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의’는 ‘모든 인류의 죄 사함’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정한 인류의 대표이자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그리스도는 안수하여 온 세상 죄를 넘기고, 예수그리스도는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므로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러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할 대제사장으로 세례요한을 세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두 사

람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땅의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이 예수그리스도께 안수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때 아담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온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므로 온 세상의 죄 사함이 이루어 졌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례를 받아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장 30절)’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세례를 받아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없애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사탄마귀는 지금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하고, 예수님이 실패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진리가 없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없애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 있다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죄 없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죄 없다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판과 심판록 책에서 완벽하게 죄가 지워지고, 우리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탄 마귀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가 없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십자가의 피를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없애주셔서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거짓말이다, 교만하다’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에 할 수 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 ‘나는 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 결단코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셔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넘치는데 어떻게 죄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

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애셨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세례를 받으시므로 나의 평생의 모든 죄를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온 세상 죄를 다 없애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고 그저 날마다 죄를 용서 해달라고 울부짖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아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그 죄값을 다 치렀다”고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게 세례의 복음을 듣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죄에 눌러 괴로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세례로 마음속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겼을 때, 저의 마음에 죄가 사라지고 참된 자유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에 진리가 임하자 자유 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저와 똑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지금 진정으로 그 모든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들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므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넘겨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담당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실패하신 것 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세례의 복음을 믿으므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나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대표이기에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것이 곧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가 안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죄를 다 넘겼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넘겼으니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다 넘긴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죄 사함입니다. 진정한 죄 사함은 지금도 죄가 없고, 내일도 죄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완전한 죄 사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례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완전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모든 죄를 세례로 예수님에게 다 넘겼기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넘긴 사람은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죄를 넘기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앞에 순복하십시오. 마음을 겸손히 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16절)”

저는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고통 받는 이들에게 이 세례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기쁜 복음을 듣는 자마다 믿음으로 화합하여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이 다 복음의 새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신령한 은사를 지닌 특별한 자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믿어서 죄 사함 받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주님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누구에게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속의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 질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썩은 옛 지식과 믿음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7.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 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34절)”

세례요한은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증거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 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 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5~8절)”

이 말씀에서 요한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빛은 예수그리스도이고 어둠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위해 세움을 받은 자가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로 온 세상 죄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은 세례요한의 전도를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메시아(예수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된 의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한 직후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담대히 전파합니다. 세례요한이기에 온 세상에 제일 먼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에게 세례로 세상 죄를 넘긴 세례요한이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

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 하였노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 안수하여 세례를 행하였고, 예수님께 온 세상 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통해 듣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합니다. 물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곧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례요한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인류의 대표로서 내 머리에 안수하여 온 세상 죄를 나에게 넘기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내게 안수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여 온 세상의 죄를 사하고 온 세상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물에 잠겼다가,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도 보시고 세례요한도 보았습니다. 이일 후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였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세상 죄를 담당하셨는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세례요한

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므로 온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세상 죄를 넘김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그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주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나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죄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므로 예수님에게 마음속의 모든 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 죄들을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세례요한의 손을 통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에 세상 죄를 담당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죄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영)에 죄 사함을 받는 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넘길 수가 있겠어요? 나는 도저히 못 넘기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생각에는 양심적인 것 같으나 만약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고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죄송해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세상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세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료형으로 다 해 놓은 일을 지금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현재형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송스러워서 안 믿고 죄를 안고 지옥에 가겠다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세상 죄 속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죄 사함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를 받아 다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넘길 때 찢끔찢끔 계속해서 평생 동안 넘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번에 넘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번 세례를 받을 때, 온 세상 죄가 단번에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죽음으로 그 죄값을 완벽하게 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의 따라 헛된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 어떤 지식이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단번에 온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순간부터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진리가 흘러나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 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여러분, 세리와 창기처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는 자가 되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8.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58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소문은 온 유대 땅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썩는 육체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가 어찌 제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니,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다’의 의미는 바로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매일 매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므로 그 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몸을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온 세상의 죄를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법대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므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곧 세례요한은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기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례를 받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고, 세례요한이 안수로 모든

세상 죄를 자신의 몸에 넘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세상 죄를 담당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떡을 떼 때마다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사 세례로 그 몸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것을 알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고 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온 세상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28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갚으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를 담당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 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로 나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마음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그 사람도 내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4~57절)”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가져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헛된 죽음인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 인줄 알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으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영원한 속죄제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대표할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요한이 예수그리스도께 안수하여 세상 죄를 넘긴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 넘기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완성하신 죄 사함이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서도 우리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도 육체로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 영은 죄 사함을 받았기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주님이 그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영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점차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날마다 되새김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으므로 죄 사함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도 세례를 받으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으므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므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세례가 구원(죄 사함)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에게도 세례가 구원의 표였고, 바울에게도 세례가 구원의 표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 세례의 복음을 믿은 저에게도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세례로 예수님에게 마음의 모든 죄를 넘긴 여러분에게도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진리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16절)”

9. 세례로 죄를 없애신 예수님

〈죄를 알아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고 완전해서 아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이 세상의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큰 부자라도 자기나 그 형제를 위해 죄의 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뻑뻑한 구름처럼 많아서 오직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사람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행악의 종자(씨)입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첫 사람 아담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계속해서 죄의 욕망들이 올라옵니다.

이 일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나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듯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21~28)”**

사람에게는 이 12가지의 죄가 있어서, 이것이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28)”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음란’ 한 죄와 ‘간음’ 하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간음을 행합니다.

‘살인’ 하는 죄가 속에 있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으로는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들도 모두 똑같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는 속에 ‘속임’의 죄가 있어서, 남을 속이고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파서 훼방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 12가지 죄가 우리 속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으로는 저마다 차이를 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겉을 조금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깨끗한 줄 알지만, 그 속은 여전히 온갖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겉이 깨끗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은 죄가 가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죄가 있긴 해도 조금 있다’ 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무지하여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 십계명〉

“제일은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

제이는 -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

제삼은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제사는 -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제오는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제육은 - 살인하지 말라 -

제칠은 - 간음하지 말라 -

제팔은 - 도적질하지 말라 -

제구는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

제십은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 (출애굽기 20장 3절~17절)”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죄를 깨닫는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늪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죄를 사랑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끝내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로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양심의 법을 따라 막연하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마음에 새기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죄와의 싸움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 인줄 알아야 죄를 인정할 수 있고 죄를 인정해야 죄 사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통해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많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와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먼저 아시고, 그 마음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절망했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모르거나 인정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속에서 살며 죄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죄 인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어떤 노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하고, 그 법 앞에 드러나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서 버리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더불어 산다면, 그 죄와 함께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잣대로 삼아 그 법에 어긋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만 그 죄 사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로 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으로 우리속의 죄와 싸우는 일은 하면 할수록, 마음과 힘을 다해 죄를 안 지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더럽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설상 어떤 이가 계명을 너무나 잘 지켜서 99%를 지켰다 해도 이것은 100%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일생을 살면서 단 한번이라도 어겼다면 그 모든 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명이지만, 계명을 통해 우리 속의 죄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겸손히 간절하게 그 죄 사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더럽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평생의 죄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겸손해져서 죄 사함을 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3~17)”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행한 세례는 머리에 안수하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3:3)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겸손의 본을 보이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인간들처럼 죄 사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세례를 행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 는 곧 ‘모든 인류의 죄 사함’ 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1년 1차(7월10일) 드리는 대 속죄 제사에서 온 백성을 대표하여 희생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 년 동안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단번에 넘겼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취하였던 두 염소는 회막 문 앞뜰에 두었다가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 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고, ‘아사셀’ 로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 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아사셀(the scapegoat)’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지다/ 속죄양’ 입니다.

‘아사셀’ 로 속죄하는 방법은 대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넘기는 것입니다.

‘안수(lay both his hands on the head)’ 의 의미는 ‘넘어가다, 전가시키다’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로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가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하신 속죄제물에게 죄를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속죄제사에서 반드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야 합니다. 안수 없이 드리는 제물은 속죄제물이 될 수 없고, 그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안수 없이 드리는 제사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넘긴 후에 ‘아사셀’ 염소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사람이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서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로 죄를 넘김 받은 희생제물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의 일 년치 죄를 사함 받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 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 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땅의 대제사장이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아담서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죄도 이때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세상 죄’ 라 함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실 때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16)”***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신 후에 요단강 물에 잠기셨다가 곧 올라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안수→물에 잠김→물에서 올라오심’의 형식이었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죄가 넘어가다, 전가되다’ 이고, ‘물에 잠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고, ‘물에서 올라오심’의 의미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세례요한은 자신이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온 세상 죄를 넘겼기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따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써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머리에 안수 받아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원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자범죄도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일 년 동안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넘겼듯이, 인류의 대표로 세움 받은 세례요한이 땅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써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여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온 세상 죄가 단번에 다 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묶여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원죄, 자범죄를 모두 다 단번에 담당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 담당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완성하셨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믿으면 마음에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록 책에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하신 죄 사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믿으므로 단번에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남은 평생을 이 기쁜 복음을 기억하며 되새김질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므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 사함 받은 자들은 늘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 찬양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십자가의 피, 반드시 둘 다 믿어야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희생양의 피가 죄를 씻었으나,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먼저 넘김 받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 사함의 법’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세례를 받아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번 오셔서 한번 세례를 받으셔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벽하게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 으로 완성된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믿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 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21)”

사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 의 복음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 로 세상 죄를 없앴기에 ‘물과 피’ 를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한 죽음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온 세상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온 세상을 죄에서 단번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믿으면 마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물과 피의 복음’ 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 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물과 피의 복음’ 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물과 피의 복음’ 곧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반쪽이 아닌 완전한 복음을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15~16)”***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 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물과 피의 복음’ 을 믿고 죄 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